김진무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⑫ 가상대사(嘉祥大師) 길장(吉藏)



▶ 한줄 요약

길장이 세운 삼론종은 그 시기에 도교에 깊은 영향을 미쳐 성현영(成玄英)이 중현학(重玄學)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사상을 제공하였고, 또한 우두종에서는 삼론종과 중현학을 받아들여 독자적인 선풍(禪風)을 일으키게 하였다.

삼론종 정립해 불교학 발전에 공헌

수대(隋代)에 문제(文帝)와 양제(煬帝)의 불교 부흥정책에 힘입어 수많은 고승들이 출현하였고, 그에 따라 불교학의 발전 역시 두드러졌다. 이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천태학을 건립한 지자대사(智者大師) 지의(智顗)이지만, 또한 구마라집(鳩摩羅什)에 의해 번역된 〈중론(中論)〉, 〈백론(百論)〉, 〈십이문론(十二門論)〉으로부터 출현한 삼론종(三論宗)을 정립한 길장(吉藏, 549~623)을 손꼽을 수 있다. 특히 길장은 남조의 진(陳)으로부터 수대를 거쳐 당(唐: 618~907)이 건립된 이후에 입적하였으니, 그 생애가 삼조(三朝)에 걸쳐 있다고 하겠다.

삼론종의 건립자이면서 수많은 저술을 찬술한 길장의 전기와 자료는 당대 이후 삼론종의 전승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다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속고승전〉에 비교적 상세한 그의 전기가 실려 있고, 〈불조통기〉 등에 간략한 전기와 관련된 자료들이 남아 있어 그를 참조하여 그의 생애를 살펴보고자 한다.

길장의 속성은 안(安)씨이며, 부친이 본래 안식국(安息國: 현 이란 북동부)출신이지만, 전쟁을 피해 교주(交州: 현 베트남 북부)와 광주(廣州: 현 廣西省)지역에 머물다가 금릉(金陵: 현 南京)으로 이주하여 길장을 낳았다. 본래 불교신앙이 깊었던 길장의 부친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진제삼장(眞諦三藏)을 참알하여 '길장' 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그 후 길장의 부친은 출가하여 법명을 도량(道諒)으로 하고, 항상 길장을 데리고 흥황사(興皇寺) 도랑(道朗)의 강의를 들었는데, 어린 길장은 그 강의를 모두 이해하였다고 한다.

길장의 나이 7세(혹은 13세)에 도랑에게 출가하였으며, 14세에는 법랑(法朗)으로부터 〈백론(百論)〉을 수학하였다. 여기에 언급되는 도랑과 법랑은 모두 삼론종의 법맥을 계승한 이들이다. 그에 따라 삼론종의 법맥은 삼론을 최초로 번역한 구마라집으로부터 승숭(僧嵩), 담제(曇濟), 승랑(僧朗), 승전(僧詮), 법랑을 거쳐 길장으로 설정하고 있다. 길장은 19세에 이르러 강의를 시작하였는데, 그 명성이 진나라에 널리 펴졌으며, 20세에 구족계를 받은 후에는 진의 계양왕(桂陽王)이 그를 흠모하여 늘 강의를 들었다.

진말에 수(隋)의 군대가 침공하자 길장은 훼손을 우려하여 여러 도반들과 각 사찰들을 돌며 불교의 전적들을 수집하였으며, 전란이 끝나자 이를 모두 정리하였다고 한다. 그에 따라 길장이 섭렵한 전적들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되었고, 이는 그의 저술들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수가 진을 멸하자 길장은 진망(秦望, 현 折江省 紹興市)의 회계산(會稽山) 가상사(嘉祥寺)에 주석하며 강론을 하자 그의 문하에 1000명이 넘는 학인들이 운집하였고, 도를 배우기 위해 온 승속(僧俗)의 이들로 그 주변이 도시를 이루었다고 한다. 이러한 까닭에 길장은 '가상대사(嘉祥大師)' 라고 칭하게 되었다.

길장이 가상사에 주석할 때에 〈법화경〉을 강의하였으며, 〈법화의소(法華義疏)〉 12권, 〈법화현론(法華玄論)〉 10권 등을 찬술하였다. 개황(開皇) 17년(597) 천태 지자대사가 다시 천태산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길장은 100여 명의 승려들과 함께 〈법화경〉을 강의해 달라는 편지를 보냈지만, 지자대사가 입적하여 무산되었고, 나중에 지자대사의 제자인 관정(灌頂)으로부터 천태의 종의(宗義)를 들었다고 한다.

개황 말년에 진왕(秦王) 양광(楊廣: 煬帝)이 양주(揚州)에 4개의 도량(道場)을 개설하여 고승들을 초빙하였는데, 길장도 혜일도량(慧日道場)에 초청되어 극진한 예우를 받았으며, 개황 19년(599) 양광이 제도(帝都)인 장안(長安)으로 가면서 길장을 동행시켜 일엄사(日嚴寺)에 주석하게 하였다. 길장은 일엄사에서 〈유마경〉을 정리하면서 〈정명현론(淨名玄論)〉을 저술하였다. 그에 따라 장안에 길장의 명성이 널리 펴졌다. 이후 양제(煬帝)의 차남 제왕(齊王) 양간(杨暕)이 길장을 흠모하여 대업(大業) 5년(609)에 60여 고승들을 청하여 변론회(辯論會)를 개최하였는데, 길장을 논주(論主)로 임명하였다. 〈고승전〉에는 당시 승찬(僧璨)과의 논쟁을 언급하면서 길장이 압승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불심 깊은 부친 영향 7세에 출가
〈대승현론〉 5권 등 40여 종 저술
법랑 학설 계승 삼론과 열반 탐구
'법화' '현의' 받아 〈법화경〉 논구
독자적 삼론종 종의(宗義)를 수립



길장 초상화.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중국역대인물 초상화(한국인문고전연구소)

이후 수조(隋朝)가 망하고, 당(唐) 고조 이연(李淵)이 장안에 이르자 불교의 대표로서 길장을 청하여 대화를 나누고 극진하게 예우를 갖추었다. 이후 무덕(武德) 원년(618), 당조에서 10명의 대덕들을 청하여 수대에 지나치게 비대해진 불교를 관리하고자 하였는데, 그 가운데 길장이 초빙되었다. 후에 고조의 4남, 태종(太宗)의 동생인 이원길(李元吉)이 길장을 청하여 연흥사(延興寺)에 주석하게 하여 극진히 모셨지만, 길장은 점차 노환에 시달리게 되었고, 무덕 6년(623) 5월에 임종에 앞서 또한 〈사불포론(死不怖論)〉을 찬술하였고, 세수 75세로 안좌(安坐)하여 입적하였다.

길장이 입적하자 황제는 칙명으로 위문하고 부조하였으며, 남산(南山)에서 석감(石龕)을 찾아 유골을 안치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제자 혜원(慧遠)은 남산의 지상사(至相寺)의 북암(北巖)에 석굴을 조성하여 안치하였고, 그곳에 공덕비를 세웠다.

길장은 50여 년 동안 법을 펼치면서 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승전(僧傳)이 보이는 이들은 혜원, 지발(智拔), 지개(智凱), 지명(智命), 석법사(碩法師), 혜관(慧灌) 등이다. 그 가운데 혜관은 고구려인이며, 후에 일본으로 건너가 삼론을 전하였기 때문에 일본 삼론종의 초조(初祖)가 되었다.

또한 길장의 저술은 상당히 방대하여 40여 종에 달하지만, 현존하는 것은 26부이고, 그 가운데 몇 부는 진위(眞僞)가 의심스러운 것도 있다. 그를 모두 나열할 수는 없지만, 현재에도 자주 인용되는 저술은 〈대승현론(大乘玄論)〉 5권, 〈삼론현의(三論玄義)〉 1권, 〈이제장(二諦章)〉 3권, 〈중관론소(中觀論疏)〉 10권, 〈백론소(百論疏)〉 3권, 〈십이문론소(十二門論疏)〉 3권, 〈법화론소(法華論疏)〉 3권, 〈법화의소(法華義疏)〉 12권, 〈법화현론(法華玄論)〉 10권, 〈열반경유의(涅槃經遊意)〉 1권 등이다.

길장의 생애를 통하여 그의 학설은 흔히 세 차례의 변용을 거쳤다고 평가한다. 첫째는 그의 스승인 법랑의 학설을 계승하여 삼론과 열반(涅槃)을 깊게 탐구하였으며, 둘째는 천태종에서 제창한 '법화(法華)' 의 '현의(玄義)' 를 받아들여 〈법화경〉의 사상을 논구하였고, 최후로는 다시 삼론으로 돌아가서 〈삼론현의〉 등을 찬술하여 독자적인 삼론종의 종의(宗義)를 수립하여 선양했음을 말한다. 그에 따라 길장 이전을 '고삼론(古三論)' 이라 칭하고, 길장의 삼론학을 '신삼론(新三論)' 이라고 칭한다.

그에 따라 길장은 삼론학에 있어서 자신의 새로운 견해를 밝혔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는 그의 〈대승현론〉(大正藏45 所收)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다. 〈대승현론〉은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의(二諦義), 팔불의(八不義), 불성의(佛性義), 일승의(一乘義), 열반의(涅槃義), 이지의(二智義), 교적의(教迹義), 논적의(論迹義) 등의 '팔과(八科)' 로 구성되어 있다. 그 논술에서 길장이 이미 찬술한 저술을 인용하고 있고, 또한 길장의 사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된 점으로 인하여 길장의 만년 혹은 사후에 제자들에 의하여 편집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받으며, 위작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렇지만 길장의 사상이 집약되어 있어 삼론종의 중요한 저술이고, 특히 일본 삼론종에 미친 영향이 가장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대승현론〉에서는 용수(龍樹)의 중관(中觀) 사상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는데, 특히 '이제의' 에서는 '사중이제론(四重二諦論)' 을 제창하고 있다. 또한 권3의 '불성의' 에서는 남북조시기에 출현한 '불성' 에 대한 주장들을 11가(家)로 정리하고 있으며, 그에 대하여 세세하게 평가하고 있다. 이는 당시 불교학계의 핵심적인 논의가 '불성' 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모두 소개하기에는 짧은 지면에 가능하지 않지만, 길장은 이를 중도불성(中道佛性)의 입장에서 '쌍견(雙遣)' 과 '수파(竪破)' 를 진행하고, 또한 이를 '횡론(橫論)' 으로 전개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쌍견' 이란 반야의 논리로 '유(有)' 와 '무(無)' 를 모두 버리고 '중도' 를 지향하는 바와 같이 대립되는 불성의 논리를 모두 버리는 입장이고, 이것이 바로 '수(竪: 세움)' 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이른바 논파[破]하여 '무소득' 의 중도불성을 제창하고 있다. 그런데 천태학에서도 중도불성을 제창하지만, 삼론종과는 입장이 다르다. 이를 상세히 논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지만 억지로 양가를 비교하여 논하자면, 삼론종의 중도는 '진공(眞空)' 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천태종의 중도는 '묘유(妙有)' 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승현론〉의 '불성의' 논의 과정에서 또한 '이내(理內)' 와 '이외(理外)' 로 나누어 " '이외' 에서는 이미 중생도 없고 또 불성도 없다."고 하지만, 만약 '이내' 에서 말한다면 "중생에게 불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초목(草木)에게도 불성이 있다."고 논하고 있고, 나아가 "의보(依報)와 정보(正報)가 둘이 아닌 까닭으로 중생이 불성이 있으니, 바로 초목도 불성이 있다."고 의정불이(依正不二)의 입장에서도 논하고 있다. 이는 이후의 불성론 전개에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 특히 우두종(牛頭宗)의 선사상과 후대에 조사선에서 '무정불성(無情佛性)' 과 '무정설법(無情說法)' 의 제창에 중요한 작용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길장의 생애는 남조의 진으로부터 수대, 당의 건립에 이르는 3조에 걸쳐 있다. 더욱이 이 삼조의 황권으로부터 모두 중시 받았음은 그의 불교사상이 뛰어났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길장이 세운 삼론종은 그 시기에 도교에 깊은 영향을 미쳐 성현영(成玄英)이 중현학(重玄學)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사상을 제공하였고, 또한 우두종에서는 삼론종과 중현학을 받아들여 독자적인 선풍(禪風)을 일으키게 하였다. 비록 삼론종은 당대(唐代) 이후에 전승이 끊어져 법맥은 사라졌지만, 길장이 남긴 수많은 저술들은 중국선과 도교 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前 동국대 불교문화원 부교수〉

인등생산 전문기업

금륜사

30여년 축적된 원목제품 생산

노하우와 장인정신으로 유수의 사찰과
맞춤제작 인연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 무상 A/S 2년 보장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전화 010-3781-2460 / 031-534-0048

팩스 031-532-2468

